

“라이프스타일 선도...호남 대표 백화점 거듭날 것”

호남지역 택배 이용객
농수산물 훼손 피해 많아

롯데백화점 광주점 개점 20주년

생활가전 매장 대폭 확대...유명맛집 유치도
'가전 디지털 전문관', '홈리빙 전문관' 오픈
트렌드 선도 팝업전용매장 '더 웨이브' 운영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8일 개점 20주년을 맞는다.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개점 20주년을 맞아 '가전 디지털 전문관'과 '홈리빙 전문관' 등 트렌드 반영 매장개편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호남 대표 백화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부장은 "최근 수년간 가치 소비 중심의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과 일과 삶 속에서 균형을 찾는 '워라밸' 열풍에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가는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에 개점 20주년을 기점으로 광주점은 차별화된 리빙 특화 매장 확대 및 새롭고 트렌디한 이슈 브랜드 팝업 행사 도입 등을 통해 수준 높은 호남 고객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지난 8월 기존 8층 생활가전 매장을 영업면적 약 950㎡(약 300평) 늘려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 8층 '홈리빙 전문관' 등 총 2개층으로 확대 오픈했다.



김정현
광주영업부부장

이는 신혼부부 중심으로 실제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가전·가구 상품 만큼은 가격과는 무관하게 구매를 하는 가치 소비 문화가 전 세대에 걸쳐 보편화 되면서, 광주

점 생활가전 매장의 매출은 2012년 이래로 매년 7% 이상의 고신장을 기록하고 있고 생활가전 상품군의 매출구성비도 2012년 8.7%에서 2017년에는 12.3%로 대폭 뛰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결과이다.

9층 '가전 디지털 전문관'에서는 LG·삼성전자 메가샵과 더불어 '다이스 전문관', '공기청정기·안마의자 특별 체험관' 등을 전격 유치했고, 8층 '홈리빙 전문관'에서는 수제작 원목가구 브랜드인 '바이헤이데이'와 '카레클린트',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인 '실리', 친환경 섬유 소재 가구 브랜드인 '토레' 까지 4개 브랜드가 추가 신규 입점해 명실 상부 호남 지역 최대 생활가전 명품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호남 지역 최초로 '가전 디지털 전문관'을 오픈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 팝업전용매장(임시매장)인 '더 웨이브(The Wave)'를 7층을 제외한 2층에서 9층까지 전 층에 걸쳐 운영해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핫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빠르게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점의 '더 웨이브'는 흔히 SA급 자리로 일 칸은 에스컬레이터 주변 명당에 파격적으로 위치해 새로운 트렌드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SNS 이슈 상품 등 새로운 컨셉트를 소개하고 신규 브랜드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점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에

더불어 팝업전용매장(임시매장)인 '더 웨이브(The Wave)'를 7층을 제외한 2층에서 9층까지 전 층에 걸쳐 운영해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핫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빠르게 소개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 특산물 특별 매장인 '6차 산업 전문관'을 통해 지역 생산자 판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완도 및 순창 등 지역 지자체와 '지역 특산물 기획전'을 진행해 각 지자체 농어가 대상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부장은 "지난 20년간 지역 고객들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광주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며 "전국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호남 지역 고객의 수준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매장 개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호남 대표 백화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에 공헌해 함께 나아가는 상생 경영으로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광주세관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 자제를”

아프리카 돼지열병·메르스 차단 위한 특별 검사 실시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여행객들에게 공항과 항만을 통한 햄·소시지·순대·만두·육포 등 돼지고기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관은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검역 관련 집중 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리플릿 배포 등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돼지고기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돼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현재 발생국가는 폴란드·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유럽 11개 나라와 아프리카 대륙 28개 나라, 중국 등 전 세계 40개국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메르스 발생국가에서 직항으로 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발생국가 경유 여행자를 추

적 관리해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검색하고 여행자 전수검사를 확대하는 등 해외 전염병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와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총포·도검·마약 등 반입금지품과 면세초과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시경 본부세관장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인력과 장비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메르스 등으로 인한 국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광주전남 중기청, 영광매일시장서 간담회

광주전남 중기청이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은 17일 오전 영광매일시장을 찾아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조성준 영광터미널시장 회장, 이분남 영광고추특화시장 회장, 봉태희 영광매일시장 전문위원 등과 함께 우수맛집을 탐방하고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내수침체 등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어려움 극복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지속적인 매출 하락에 따른 점포운영의 어려움을 강력하게 토로하면서, 주차장 증설 등을 요청했다.

이에 광주·전남청은 "지역 공공기관에 온누리 상품권 활용 및 전통시장 정보기 협조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추석맞이 릴레이 장보기' 행사와 함께 매일 직원들이 주체가 돼 전통시장 먹거리 탐방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충분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주시 시장의 매출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인들도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서 살거리뿐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중 기자

함평 손불농협 하나로마트 개장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손불농협 하나로마트를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

4억여 원을 들여 손불면 대전리에 건축면적 660㎡ 규모로 지었다.

매장, 사무실, 고객 편의시설, 물품창고 등을 갖췄다.

박태선 본부장은 "지역 속원사업으로 신축, 개장한 하나로마트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과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최고 상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규진 기자 jin2001@



전남도민일보
네트워크 제휴사

세상을 읽는 바른 신문